

합열읍, 북부권 중심지로 재도약

사업비 220억원 확보... 지역상권 활성화 · 생활 환경 개선에 초점

익산 합열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추가되면서 북부권 중심지로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한 시는 총 6개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며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공모에 합열지역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2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합열읍 외리 일원으로 특화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합열(咸悅)'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신청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선정에 따라 합열읍 외리 18만㎡ 일대에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도비 20억원, 시비 80억원 등 총 220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1차 생산물을 유통 · 판매하는 순환경제협력센터 등을 조성하고 로컬 순환경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상권 가로환경 개선사업, 로컬컨텐츠 개발, 청년창업 지원공간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테마골목과 쌈지 주차장 등 스마트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들의 정주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대비 신규공모 선

정 지역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신청 전부터 지역 정치권과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합열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에 강력히 요청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한몫했다. 합열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17년 중앙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처음 선정된 이후 2019년 2곳, 2020년 1곳, 지난해 1곳, 올해 1곳 등 4년 연속 선정되어 총 6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난 16일 청년들 공유카페에서 시민감사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시민감사관 주요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군산시, 시민감사관 주요활동 성과보고회 위한 간담회

군산시는 지난 16일 청년들 공유카페에서 시민감사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시민감사관 주요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2년도 시민감사관 주요활동 성과보고회와 2023년 시민감사관 활동 계획에 대해 자유토론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도 시민감사관 주요성과를 보면 시 종합감사 조춘동 외 8개소, 특정감사 구세군군산북안원 외 3개소에 참여했다. 해빙기 대비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감사 및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각종 시민 불편 사항 30건을 건의해 27건은 개선

완료하고 3건은 관련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안현종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불편 사항을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감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공공분야 갑질과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와 신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글로벌화 걸맞은 위생서비스 향상 꾀한다

시 등록 7653개 위생업소 대상 지도점검 강화

군산시는 업그레이드된 친절 · 질서 및 위생서비스로 명품도시로 걸맞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7,653개소(공중위생 1,692, 식품위생 5,961)에 대해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로 위생업소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올해 공중(숙박 · 이용 · 미용 · 목욕 · 세탁), 식품(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류 · 단란주점) 등 10개 업종에 대해 24회 1만2,013명이 참

여한 가운데 영업자 및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행사 시 위생지도와 각종 행사에 맞춰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앞치마, 소독제 등 위생용품 제작 · 배부했다. 앞서 지난 9월과 10월에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실시로 시설 위생을 점검하고 체류형 숙박업소 및 먹거리 정보 등 주기적인 교육 및 지도 점검을 가졌다. 오는 2023년에는 체류형 접객문화

조성을 위한 업소 환경 개선 및 위생을 지도하고 소비자감사원과 연계한 친절 서비스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 · 음식 예약 및 불편사항 신고, 설치 운영을 실시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문다혜 위생행정과장은 “오는 2023년에는 위생 ·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겠다”면서 “친절 · 질서 및 명품도시로 걸맞은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입점농가 급증... 실버농촌 '활력'

농촌 고령화로 농산물 생산과 판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익산시의 온라인 쇼핑몰 등 차별화된 시장 전략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입점농가가 지난해 611농가에 비해 올해 902농가로 147% 성장했다. 판매건수(12월15일 기준)는 지난해 15만5천493건 보다 112% 늘어난 17만4,877건에 달한다. 이는 하루평균 약500건의 온라인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매출액은 지난해 38억에서 27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판매 품목 비중이 쌀에서 원예작물로 넘어가며 벌어진



차이다. 실제 원예작물은 지난해 판매액 21억으로 68%를 차지한 데 비해 올해는 28억으로 전체 거래량의 98%로 증가해 소농 · 고령농 · 영세농가 입점 효과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다. 이 같은 입점농가의 빠른 증가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소비환경 변화에 익산시의 발 빠른 농업정책들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시는 온라인 거래상에서 농가들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택배비와 수수료, 택배박스비 등을 지원했다. 익산물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가, 우체국쇼핑) 판매로 전국에 익산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의회 내년 사자성어
'노적성해(露積成海)'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2023년 의정활동 목표 사자성어를 '노적성해(露積成海)'로 결정했다. 노적성해(露積成海: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매순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큰 목표를 이루어가겠다는 의미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시의회는 위촉된 지역경제 살리기, 참치된 원도심 활성화, 인구감소와 청년실업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의원 25명 모두가 많은 역할에 충실하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익산의 더 큰 희망, 시민들의 더 힘찬 내일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종오 의장은 “계묘년(癸卯年) 새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동친화도시 익산
'아동권리증진 캠페인'

익산시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지역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이동친화도시 환경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이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단장 김상미)과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지협의회 여성회(회장 기민정)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아동권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어양동 은누리아동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병원을 찾는 아동과 보호자의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해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책과 함께 공감 핫팩을 배부하며 아동의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시는 앞으로 지역 내 민 · 관 협업을 통하여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